

< 제 17 장 >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으로 겿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이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며,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마무리하는 절정의 기도이다.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구속 사역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선언적·중보적 기도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셋째는 장차 예수를 믿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이다.

요 18:1-2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 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다. 그리고 18:3-11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베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의 흐름에서는 17장이 기도, 18장이 체포로 바로 연결되며, 이 기도는 십자가 직전의 마지막 영적 준비의 장면이다.)

(참고. 마26:47-52, 막14:22-26, 43-50, 눅22:39-53, 요18:3-12)

1. 공관복음서의 기록

공관복음서에는 그때의 상황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고, 다시 그 세 제자를 두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었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세 번의 기도인 마26:39, 42, 44의 내용은 다르지만, 요17:9, 15, 20에 나타나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이다.

-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의 외적인 체포, 제자들의 반응, 겿세마네의 긴박한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사건의 외형보다 ‘내용’,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 공관복음은 시간의 흐름 속 사건의 전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요한복음은 그 사건에 담긴 의미와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록의 차이가 있다.

- 공관복음이 사건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보여 주는 ‘요약된 형태’라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와 기도의 내용을 풀어내어 보여 주는 ‘내면적 해석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은 공관복음에서 간략히 나타난 겿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확장하여 드러낸 본문으로 볼 수 있다.

2. 기도의 내용

- 공관복음서의 기도.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εἰ δυνατόν 에이 뒤나톤)은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긍정에 대한 간접적인 질문의 표현이다.

“**마4:6**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마14:28**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역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지나가게 하소서”(παρέρχομαι, 파렐코마이)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파라(παρέ, 곁에)+엘코마이(έρχομαι, 오다)’의 합성어로 나에게 반드시 닥쳐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심령의 깊은 고통 속에서 드린 호소이다.

- 기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령으로 한 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마26:38**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περιλυπος θανάτου, 페릴뤼포스 다나투)라는 말씀은 ‘지금 내 심령이 죽을 만큼 괴롭고 슬프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시고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셨는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이다. (‘겿세마네의 기도’ 참조)

공관복음은 ‘고통의 상태’를 보여 주고, 요한복음 그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여 준다.

3. 기도의 대상

예수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다.

요17:9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말씀하시고 있으며, **12절**에서는 열두제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20절**에서는 장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 곧 당시의 공동체를 넘어 미래의 교회 전체를 포함하는 보편적 범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순한 개인 간구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드리는 중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구속적 기도이다.

4. 기도의 결론

“**요17:23-24** 그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온전함을 이루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보호받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해 달라는 간구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보호의 요청이 아니라 ‘현재의 보존 → 궁극적 완성 → 영광의 참여’로 이어지는 구원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기도이다.

요 17:1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ἡρα, 호라)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시점(point of time), 곧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카이로스)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킨다.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시간이 ‘카이로스’이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순간이 ‘호라’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질 사건이며,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호라’이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역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안에 정해져 있으나 그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호라’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날과 그때(호라)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적 개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고, ‘호라’는 그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순간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결정적인 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호라’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호라’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호라’라는 개념은 종말론적 묵시(Apocalypse)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역사가 이 ‘호라’의 시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δοξάζω 독사)는 ‘영광을 주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로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를 높여 주는 것을 뜻한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단순한 존귀함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받게 되는 영예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의 영화는 곧 하나님의 영화이며, 십자가 사건 자체가 영광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요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어 그들이 온전한 사역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 달라는 간구이다.

“거룩”(ἀγιάζω 하기아조) :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화(성결)하게 하다.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자신을 신성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거나 여긴다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인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믿음을 뜻한다.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거룩’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1절, 4절, 예수님의 거룩), 제자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사역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로부터 보전해 달라는 간구이다(15절 제자들의 거룩).

예수님의 거룩은 단순한 성결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봉헌’을 말한다.

요 17: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받으신 영예를 의미하며,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통하여 받게 될 영예를 가리킨다.

“그들에게”(αὐτοῖς, 아우토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각 사람의 사역과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 주시는 것이다.

23-24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어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사역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게 되기를 간구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간구이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룬 제자들이 그 연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17장>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신 마지막 기도로서, 자신이 이루실 구속 사역과 그 열매가 제자들과 장차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간구하신 것이다.

이 기도는 택하신 백성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보존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 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드린 기도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은 구속의 완성과 그 적용이 교회에까지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취되는 전 과정을 담은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겻세마네의 기도>

(마26:36-46/ 막14:32-42/ 눅22:39-46/ 요17:1-26)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성으로서 이 땅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이다.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 : Last Public Career Pray)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도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I. 겻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어떠한 심령으로 한 간구인가?

26:38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죽음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슬퍼하시며 괴로운 심령으로 기도하셨는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에 대한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령의 깊은 고통에서 나온 간구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심령의 고통이 무엇이기에 땀이 피방울이 되는 간구였는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 고뇌, 갈등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보아야 한다.

II. 마태복음의 세 번의 기도에는 각각 어떠한 내용의 간구인가?

1. **26:39**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17:9-14)

★ **요17: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한다.

그러나 재림 때까지 악한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남아 있는 저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신 것이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안타까움에서 나온 간구이다.

2. **26:42**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17:15-19)

★ **요17: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달라는 간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와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3. **26:44**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17:20-23)

★ **요17: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장차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기도이다.

★예수님 기도의 결론은 제자들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보호받아 구원을 이루도록 지켜 달라는 간구이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17:15**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시어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가 되어, <**17:24** 예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간구이다.

또한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비장한 결단의 기도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마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다.

III.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마26: 38. 41)>고 말씀하신 의미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다.

<벧전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딤후2:26 저희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눅22:40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피며 경계하라는 의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영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다.

IV.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26:41.43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원이로되”라는 말씀은 영은 깨어있으려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혼이 영의 원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눈이 피곤함이라”에서 ‘피곤함’이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무거운 짐에 눌린 상태를 의미한다.

눈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지켜보며 경계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하여 사탄의 공격으로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깨어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은,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의 놀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악한 영에게 눌린다는 것은, 그들이 악한 영과 싸울수 있는 힘, 곧 영적 권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V. 영적 놀림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눅24:49**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 **행2:4** 성령이 임하므로 충만함을 받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충만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도우심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VI.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이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의미한다.

<Epilogue>

<눅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이다.

이 기도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 뜻을 막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방해하였을 것이다.

제자들 역시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물리치시며 공생애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리신 이 간구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을 앞둔 기도가 아니라, 사탄의 공세를 물리치시는 기도였으며, 동시에 재림 때까지 사탄의 공격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 달라고 드린 간구를 넘은 호소였다.